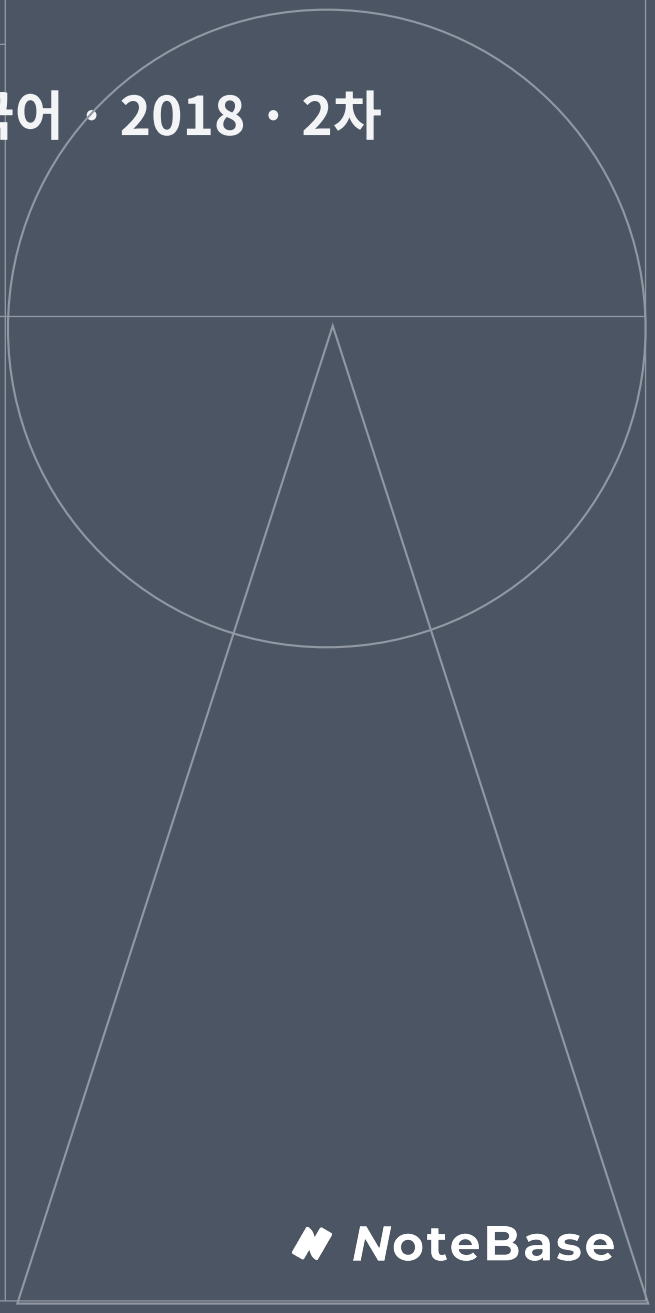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8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8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8 · 2차

문 1. <보기>의 규정이 적용된 단어가 아닌 것은?

<보기>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삼짇날[삼질+날] 숟가락[술+가락]

① 풀소
② 여닫다
③ 잗주름
④ 섣부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끝소리가 'ㄹ'인 말이 다른 말과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소리 나서 'ㄷ'으로 적는 경우와, 결합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된 규정은 앞말의 끝소리 'ㄹ'이 뒷말과 결합하면서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 그 소리를 반영하여 'ㄷ'으로 적는다는 내용이다. 반면 '여닫다'는 '열다'와 '닫다'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열다'의 'ㄹ'이 탈락한 말이므로 이 규정에 따른 표기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풀소’는 ‘풀’과 ‘소’가 어울릴 때 앞말의 끝소리 ‘ㄹ’이 ‘ㄷ’으로 소리 나서 ‘ㄷ’으로 적은 말이므로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② X — ‘여닫다’를 앞말의 ‘ㄹ’이 ‘ㄷ’으로 바뀌어 적힌 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열다’와 ‘닫다’가 결합하면서 ‘열다’의 ‘ㄹ’이 탈락한 말이다.
③ O — ‘잗주름’은 ‘잘’과 ‘주름’이 어울릴 때 앞말의 끝소리 ‘ㄹ’이 ‘ㄷ’으로 소리 나서 ‘ㄷ’으로 적은 말이므로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④ O — ‘섣부르다’는 ‘설’과 ‘부르다’가 어울릴 때 앞말의 끝소리 ‘ㄹ’이 ‘ㄷ’으로 소리 나서 ‘ㄷ’으로 적은 말이므로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오답 포인트

‘여닫다’에도 ‘ㄷ’이 나타난다는 겉모양만 보고 제시된 규정의 적용어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 ‘ㄷ’은 뒷말 ‘닫다’의 첫소리이며, 앞말 ‘열다’의 ‘ㄹ’은 ‘ㄷ’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탈락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어를 구성 요소로 나눈 뒤, 표면의 ‘ㄷ’이 앞말 끝소리 ‘ㄹ’에서 바뀐 것인지 원래 뒷말의 첫소리인지 확인한다. 앞말의 ‘ㄹ’이 단순히 탈락했다면 제시된 규정의 적용어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풀소·잗주름·섣부르다는 ‘ㄹ→ㄷ’ 표기이고, 여닫다는 ‘ㄹ 탈락’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용례를 통해 ‘갈다’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례>
㉠ 기계로 칼을 갈다.
㉡ 맷돌에 녹두를 갈다.
㉢ 자면서 뽀드득뽀드득 이를 갈다.
㉣ 이따금씩 ‘끙!’ 하고 목을 갈기도 하였다.

① ㉠을 통해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을 통해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을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을 통해 ‘윗니와 아랫니를 마주 대고 문지르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④ ㉣을 통해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다의어·동음이의어 ‘갈다’의 의미를 각 용례와 정확히 대응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그 단어가 실제 문장에서 어떤 대상과 결합하고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지를 근거로 구별한다. ‘칼을 갈다’는 연마하다, ‘곡식을 갈다’는 으깨다, ‘이를 갈다’는 이를 맞대어 문지르다, ‘목을 갈다’는 목을 매끄럽게 하려고 목에 힘을 주다라는 뜻이다. 한편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는 ‘전구를 갈다’, ‘부품을 갈다’와 같은 별개의 쓰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계로 칼을 갈다’의 ‘갈다’는 칼날을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질러 날카롭게 하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는 뜻이다.
② O — ‘맷돌에 녹두를 갈다’의 ‘갈다’는 녹두를 단단한 맷돌 사이에서 문질러 잘게 부수거나 으깬다는 뜻이다.
③ O — ‘뽀드득뽀드득 이를 갈다’의 ‘갈다’는 윗니와 아랫니를 맞대어 문지른다는 뜻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이다. 이는 ‘부품을 새것으로 갈다’와 같은 쓰임의 의미이다. ㉣의 ‘목을 갈다’는 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목에 힘을 주는 것을 뜻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뜻풀이 자체는 '갈다'가 실제로 지니는 의미이므로 그럴듯하지만, ㉣의 '목을 갈다'와는 대응하지 않는다. 단어에 존재하는 뜻인지보다 제시된 용례에서 그 뜻으로 쓰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갈다'와 함께 쓰인 목적어를 확인한다. 칼이면 연마, 곡식이면 분쇄, 이면 마찰, 목이면 목을 매끄럽게 하려는 동작, 부품·전구 등이면 교체의 의미로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칼은 연마, 곡식은 분쇄, 이는 마찰, 목은 목 가다듬기, 부품은 교체이다.

NoteBase

문 3. 다음 밑줄 친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잎이 노랗게 ㉠<u>물들었다</u>.
· 그는 이 소설책을 열심히 ㉡<u>읽었다</u>.
·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u>되었다</u>.
· 그녀는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u>여긴다</u>.

① ㉠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③ ㉢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④ ㉣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와 종류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이다. 문장에 실제로 나타난 모든 성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생략하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필수 성분만 센다.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목적어·보어·필수적 부사어 가운데 하나를,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두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물들다'는 '무엇이 어떻게 물들다'의 구조로 쓰인다. '잎이'라는 주어와 '노랗게'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읽다'는 '누가 무엇을 읽다'의 구조로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열심히'는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수의적 부사어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되다'는 '무엇이 무엇이 되다'의 구조로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 문장의 '다른 사람이'가 보어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여기다'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여기다'의 구조로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이 문장에서는 생략된 주어와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가 각각 그 자리를 채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장에 부사어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세거나, 문장에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주어 자리를 세지 않으면 틀린다. ②의 '열심히'는 수의적 부사어이지만 ①의 '노랗게'와 ④의 '당연하게'는 해당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어를 중심으로 '누가/무엇이, 무엇을, 무엇이, 어떻게'와 같은 자리를 복원한 뒤, 각 성분을 뺐을 때 문장이 온전한지를 확인한다. 생략된 필수 성분은 자릿수에 포함하고, 단순히 뜻을 꾸미는 수의적 부사어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물들다: 주어＋필수적 부사어, 읽다: 주어＋목적어, 되다: 주어＋보어, 여기다: 주어＋목적어＋필수적 부사어이다.

NoteBase

문 4. 다음은 접미사 '-히'에 대한 설명과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의 용례를 추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미사 '-히'의 의미 및 기능	접미사 '-히'의 용례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나뭇가지를 뒤로 젖혔다.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맺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
㉢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자리를 넓혀 앉았다.
㉣	(형용사의 어근이나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는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학생들이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다.

① ㉠의 용례로 "학생들에게 주로 신문 사설을 읽혔다."에서의 '읽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의 용례로 "그는 굽힌 허리를 천천히 세웠다."에서의 '굽힌'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의 용례로 "무더위가 훈련 중인 선수들을 괴롭혔다."에서의 '괴롭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④ ㉣의 용례로 "둘이 나란히 앉았다."에서의 '나란히'를 추가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접미사 '-히'가 문맥에서 사동·피동·동사 파생·부사 파생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동의 '-히-'는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뜻을 더하고, 피동의 '-히-'는 주어가 남의 동작을 당하는 뜻을 더한다. 형용사 어간 뒤의 '-히-'가 사동의 뜻을 더하면서 동사를 만들기도 하며, 형용사의 어근이나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는 어근 뒤의 '-히'는 부사를 만들기도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학생들에게 신문 사설을 읽혔다’는 주어가 학생들로 하여금 신문 사설을 읽게 했다는 뜻이다. ‘읽혔다’의 ‘-히-’가 사동의 뜻을 더하므로 ㉠의 용례로 적절하다.
② X — ‘굽힌’은 그가 허리를 굽게 했다는 능동·사동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피동을 나타내는 ㉡의 용례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의 용례’이며, 올바르게는 ‘굽힌’을 사동의 ‘-히-’ 용례로 보아야 한다. ㉡에는 ‘바람에 문이 닫혔다’처럼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피동 용례가 들어가야 한다.
③ O — ‘괴롭혔다’는 형용사 ‘괴롭다’의 어간 ‘괴롭-’에 ‘-히-’가 붙어 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된 말이다. 따라서 ㉢의 용례로 적절하다.
④ O — ‘나란히’는 ‘나란하다’와 관련된 어근 뒤에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다. 따라서 ㉣의 용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굽힌 허리’가 겉으로는 동작을 받은 상태처럼 보여 피동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장 구조는 ‘그가 허리를 굽혔다’이고, ‘허리’는 굽히는 행위의 목적어이므로 ‘굽힌’은 피동 표현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히-’가 붙은 말만 보지 않고 문장 성분의 관계를 확인한다.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하게 하면 사동, 주어가 동작을 당하면 피동이며, 품사가 형용사에서 동사나 부사로 바뀌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읽히다·굽히다·괴롭히다의 기능은 문맥으로 가르고, 나란히의 ‘-히’는 부사를 만든다.

NoteBase

문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처럼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처럼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③ ‘홍빛나 Hong Bitna’, ‘한복남 Han Boknam’처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남산 Namsan’, ‘독도 Dokdo’처럼 자연 지명물,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체언의 거센소리 표기, 인명의 띄어쓰기와 붙임표 허용, 행정 구역 단위의 생략, 지명·문화재·축조물의 붙여 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마자 표기는 발음을 기본으로 하되,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오면 ‘ㅎ’을 밝혀 적는다. 인명은 성과 이름을 띄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름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행정 구역 단위 중 ‘시, 군, 읍’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자연 지물명·문화재명·인공 축조물명은 해당 명칭 내부에 행정 구역 단위용 붙임표를 넣지 않고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시, 군, 읍’은 행정 구역 단위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은 적절하다.
② O —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올 때에는 ‘ㅎ’을 밝혀 적으므로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은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허용하므로 Hong Bit-na, Han Bok-nam으로도 쓸 수 있다.
④ O — 자연 지물명·문화재명·인공 축조물명은 행정 구역 단위처럼 요소 사이에 붙임표를 넣지 않고 붙여 쓰므로 남산 Namsan, 독도 Dokdo는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붙임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로 확대해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원칙과 허용 표기를 함께 규정한 경우에는 원칙만 맞다고 보고 허용 규정을 배제하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원칙’과 ‘허용’을 구분한다. 인명은 성과 이름을 띄고 이름은 붙여 쓰되 음절 사이의 붙임표는 허용되며, 행정 구역 단위의 붙임표·생략 규정과 자연 지물명 등의 붙여 쓰기 규정은 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인명은 ‘성 이름’으로 띄고, 이름은 붙여 쓰기가 원칙이며 음절 사이 붙임표도 허용된다.

NoteBase

문 6.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의 자료	중세 국어의 특징
나·라·해, 불·휘 기·픈	㉠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연달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활용하고 있다.
: 됴ᄒᆞᆫ, ·ᄑᆞ·디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 수·빙니·겨·날·로·ᄲᅮ·메	㉢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고 있다.
: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 주격 조사 '-히'가 사용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중세 국어 자료에서 이어적기, 구개음화의 미발생, 명사형 어미, 주격 조사를 형태소 단위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어적기는 받침을 뒤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에 이어 적는 표기 방식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 ㄷ이 ㅣ나 반모음 ㅣ 계열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명사형 어미 '-움'은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며, ㅎ 종성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면 ㅎ과 이가 이어져 '히'로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의 '나랏말싸미'와 '기픈'은 각각 받침 ㅁ과 ㅍ을 뒤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어미에 이어 적은 형태이므로 이어적기가 확인된다.
② O — ㉡에서는 ㄷ이 ㅣ나 반모음 ㅣ 계열 앞에서도 ㅈ으로 바뀌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중세 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O — ㉢의 '쑤메'는 동사 어간 '쓰-'에 명사형 어미 '-움'과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주격 조사 희'이다. ㉣의 '내히'는 ㅎ 종성 체언 '내ㅎ'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올바르게는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표면형 '내히'를 보고 '희'를 하나의 조사로 잘못 분석하기 쉽다. 그러나 '내히'는 '내ㅎ+이'로 나누어야 하며, ㅎ은 체언의 종성이고 주격 조사는 '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세 국어 형태는 현대어 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어간·체언과 조사·어미의 경계를 먼저 나눈다. 특히 '히'가 보이면 ㅎ 종성 체언에 '이'가 결합한 것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내히'는 '내ㅎ+이'이다. ㅎ은 체언에, 이는 주격 조사에 속한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최정상급으로∨이루어∨진∨시립교향악단이∨곧∨정기∨공연을∨한다.
② 제∨2분과∨회의가∨끝났으니∨이제∨자리를∨뜨는∨것이∨좋을∨성싶다.
③ 경찰∨조사를∨통해∨진상을∨들은바∨그것은∨사실이∨아님이∨드러났다.
④ 그∨사람은∨오직∨졸업장을∨따는데∨목적이∨있는∨듯∨전공∨공부에는∨전혀∨관심이∨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접두사와 단어는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쓰며, 연결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와 같은 접두사는 뒤의 말에 붙여 쓴다. '데'가 장소·일·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면 앞말과 띄어 쓴다. '-ㄴ바'가 앞 절의 사실을 뒤 절의 근거나 배경으로 잇는 연결 어미이면 앞말에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이루어 진'이 잘못되었다. '어떤 상태나 결과가 생기다'라는 뜻의 동사 '이루어지다'는 한 단어이므로 '이루어진'으로 붙여 써야 한다. 올바른 문장은 '최정상급으로 이루어진 시립교향악단이 곧 정기 공연을 한다.'이다.
② X — '제 2분과'가 잘못되었다. 차례를 나타내는 접두사 '제-'는 뒤의 숫자에 붙이므로 '제2분과'로 써야 한다. 올바른 문장은 '제2분과 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자리를 뜨는 것이 좋을 성싶다.'이다.
③ O — '들은바'의 '-ㄴ바'는 앞 절의 내용을 뒤 절의 근거나 배경으로 이어 주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제시된 띄어쓰기가 적절하다.
④ X — '따는데'가 잘못되었다. 여기서 '데'는 '졸업장을 따는 일'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따는 데'로 띄어 써야 한다. 올바른 문장은 '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는 듯 전공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들은바'를 의존 명사 '바'로 오인하여 띄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진상을 들어 보니'라는 배경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ㄴ바'이므로 붙여 쓴다. 반대로 ④의 '데'는 목적의 대상이 되는 일을 가리키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바'가 '것·내용'을 뜻하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앞 절을 뒤 절의 근거나 배경으로 이으면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데'가 '곳·일·경우'를 뜻하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접두사는 뒤의 말과 붙여 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접두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우며, 연결 어미는 붙인다.

NoteBase

문 8. <보기>에 제시된 “안은 문장”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겹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장들이 서로 나란히 이어지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① 그것은 영이가 입을 옷이다.
② 우리는 돈 없이 여행을 떠났다.
③ 결국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④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을 구별하고, 안긴 절이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은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을 절의 형태로 품고 있는 문장이다. 안긴 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어·관형어·부사어·서술어·인용어의 기능을 한다.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로 나란히 연결된 문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영이가 입을’은 ‘옷’을 꾸미는 관형절이다. 따라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② O. ‘돈 없이’는 ‘돈이 없다’가 부사어 기능을 하도록 바뀐 부사절이며, ‘여행을 떠났다’를 꾸민다. 따라서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③ O.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은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따라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④ X. ‘많이 바쁘시겠지만’과 ‘꼭 참석해 주십시오’는 연결 어미 ‘-지만’으로 이어져 있다. 틀린 표현은 이 문장을 ‘안은 문장’의 예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이어진 문장’의 예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돈 없이’는 짧아서 단순한 부사어처럼 보이지만, ‘돈이 없다’라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부사절로 바뀐 것이다. 반면 ④의 ‘-지만’은 한 절을 문장 성분으로 만드는 표지가 아니라 두 절을 연결하는 어미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부분이 전체 문장 안에서 명사어·관형어·부사어 등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면 안긴 절로 판단한다. 두 절의 서술어가 연결 어미로 직접 이어지면 이어진 문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면 안긴 절, 연결 어미로 절과 절을 잇으면 이어진 문장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그녀와 영이를 만났다.

② 10분 정도 있다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③ 그는 웃으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친절히 안내했다.

④ 그는 점심을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공부에만 몰두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의 수식 관계가 분명한지, 문맥에 맞는 어휘를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절한 문장은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의 관계가 명확하고, 서술어가 문맥에 맞게 쓰여 의미가 하나로 분명하게 전달되는 문장이다. '있다가'는 동사 '있다'에 연결 어미 '-다가'가 붙은 말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그녀와'가 '영이를 만났다'를 꾸며 '그녀와 함께 영이를 만났다'는 뜻인지, '그녀와 영이'를 모두 만났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중의적인 '그녀와 영이를'이다. 함께 만났다는 뜻이면 '나는 그녀와 함께 영이를 만났다.'로, 두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면 '나는 그녀와 영이 두 사람을 만났다.'로 고친다.

② O

'10분 정도 있다가'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전화하겠다는 뜻으로 자연스럽다. '있다가'는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를 나타내므로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다.

③ X

'웃으면서'의 행동 주체가 '그'인지 '찾아오는 학생들'인지 분명하지 않다. 틀린 부분은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웃으면서'이다. 그가 웃었다는 뜻이면 '그는 찾아오는 학생들을 웃는 얼굴로 친절히 안내했다.'로, 학생들이 웃으며 찾아왔다는 뜻이면 '그는 웃으며 찾아오는 학생들을 친절히 안내했다.'로 고친다.

④ X

공부에 몰두해 점심 먹는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문맥이므로 '잃어버리고'는 어휘 선택이 잘못되었다. 틀린 표현 '점심을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는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로 고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있다가'를 무조건 '이따가'의 잘못된 표기로 보면 안 된다. 이 문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인 '10분 정도'가 제시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라는 뜻의 '있다가'가 자연스럽다. 또한 ①과 ③은 문법 형식 자체보다 한 표현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중의성이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마다 수식어의 주체와 대상을 먼저 연결하고, 둘 이상의 해석이 생기는지 확인한다. 이어 서술어가 목적어나 문맥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있다가'는 '있다+-다가', '이따가'는 '조금 뒤에'라는 뜻의 부사이다. 중의적인 수식 관계와 문맥에 맞지 않는 서술어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국어의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녀는 정말 많이 운다.”에서 ‘정말’은 동사를 꾸며준다.

②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에서 ‘과연’은 문장을 꾸며준다.

③ “영이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꾸며준다.

④ “아이는 맨 흙투성이로 집에 들어왔다.”에서 ‘맨’은 명사를 꾸며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부사가 문장에서 실제로 어떤 말을 꾸미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지만, 다른 부사나 관형사, 명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수식 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부사의 바로 뒤에 놓인 말과 문장 전체의 의미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정말’은 동사 ‘운다’를 직접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많이’를 꾸민다. 틀린 표현은 ‘동사를 꾸며준다’이며, 올바르게는 ‘부사인 많이를 꾸며준다’이다.
② O — ‘과연’은 화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탄하는 태도를 드러내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라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③ O — ‘아주’는 ‘새 사람’에서 명사 ‘사람’을 꾸미는 관형사 ‘새’의 정도를 한정하므로 관형사를 꾸민다.
④ O — 이 문장의 ‘맨’은 ‘다른 것은 섞이지 않고 온통’이라는 뜻으로 쓰인 부사이며, 명사 ‘흙투성이’를 꾸민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 ‘정말’이 결국 우는 정도를 강조한다고 보아 곧바로 동사 ‘운다’를 수식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문장 구조상 ‘정말’이 직접 꾸미는 말은 바로 뒤의 부사 ‘많이’이다. 또한 ④의 ‘맨’을 언제나 관형사로만 보면 안 되며, 이 문장에서는 ‘온통’의 뜻을 지닌 부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부사의 뜻을 바로 뒤 말과 결합해 본다. ‘정말 많이’처럼 자연스럽게 결합하면 부사를, ‘아주 새’이면 관형사를, ‘맨 흙투성이’에서 ‘맨’이 ‘온통’의 뜻이면 명사를, ‘과연’이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면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사는 용언만이 아니라 부사·관형사·명사·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다.

NoteBase

문 11.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믈외(物外)예 조흔 일이 어부 싱애(生涯) 아니러냐
뷔 떠라 뷔 떠라
어옹(漁翁)을 웃디 마라 그림마다 그렷더라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
ᄉᆞ시(四時) 흥(興)이 ᄒᆞᆫ가지나 츄강(秋江)이 은듬이라

(나)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믈(景物)이 달랃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ᄂᆞᆫ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ᄂᆞᆫ ㉣쳔텹옥산(千疊玉山)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
션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① 사계절을 배경으로 각각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②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라는 여음이 전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③ 조선 후기의 시조 문학을 대표하는 맹사성의 작품이다.

④ (가)는 가을, (나)는 겨울을 각각 배경으로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윤선도의 연시조 「어부사시사」의 구성, 후렴구, 작가, 계절적 배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부사시사」는 윤선도가 자연 속 어부의 생활과 흥취를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노래한 연시조이다.
봄·여름·가을·겨울 각 10수씩 모두 40수로 이루어지며, 각 수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여음이 반복된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도 사계절의 자연과 삶을 노래하지만, 작가와 작품 구성이 서로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어부사시사」는 사계절을 배경으로 봄·여름·가을·겨울을 각각 10수씩 노래한 총 40수의 연시조이다.
② O —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는 노 젓는 소리와 배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여음으로 전편에 반복되어 작품의 통일감과 흥취를 형성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맹사성의 작품'이다. 올바르게는 조선 후기의 시조 문학을 대표하는 윤선도의 작품이다. 맹사성의 작품은 「강호사시가」이다.
④ O — (가)의 '추강'은 가을 강을 뜻하므로 가을이 배경이다. (나)의 '간밤의 눈'과 눈 덮인 경물은 겨울의 정경을 나타내므로 겨울이 배경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계절의 자연 속 삶을 노래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어부사시사」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윤선도·40수'와 '맹사성·4수'의 대응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명만 외우기보다 작가·구성·반복구를 묶어 판단한다. '40수'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가 보이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연결하고, 제시문의 계절어로 각 부분의 배경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윤선도 「어부사시사」는 사계절 각 10수, 총 40수이고, 맹사성 「강호사시가」는 사계절 각 1수, 총 4수이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믈외(物外)예 조흔 일이 어부 싱애(生涯) 아니러냐
빈 떠라 빈 떠라
어옹(漁翁)을 웃디 마라 그림마다 그렷더라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
ᄉᆞ시(四時) 흥(興)이 ᄒᆞᆫ가지나 츄강(秋江)이 은듬이라

(나)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믈(景物)이 달랃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는 ㉣쳔텹옥산(千疊玉山)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
션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① ㉠: 노젓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다.

② ㉡: '배를 매어라'는 의미의 여음구이다.

③ ㉢: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쓰인 여음구와 한자어의 뜻을 문맥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국총: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를 한자의 음을 빌려 나타낸 의성어이다.

이어라: 배의 노를 저으라는 뜻을 담은 여음구이다.

만경유리: 유리처럼 반반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바다를 비유한 말이다.

천첩옥산: 옥처럼 아름다운 산이 수없이 겹쳐 있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 ‘지국총’은 노를 저을 때 나는 ‘찌그덩’과 같은 소리를 한자의 음으로 옮긴 의성어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배를 매어라’이다. ㉡ ‘이어라’는 배의 노를 저으라는 뜻의 여음구이며, 배를 정박시키라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배의 노를 저어라’이다.
③ O — ㉢ ‘만경유리’는 넓게 펼쳐진 바다가 유리처럼 반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O — ㉣ ‘천첩옥산’은 옥처럼 아름다운 산들이 수없이 겹쳐 있는 모습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이어라’를 작품 후반에 나오는 ‘배 매어라’와 혼동하기 쉽다. ‘이어라’는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말이고, ‘배 매어라’는 돌아온 배를 정박시키는 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음구는 배의 출항·이동·귀항 과정에서 어떤 동작을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이어라’는 이동 중 노 젓기, ‘배 매어라’는 귀항 뒤 정박으로 구별한다. 한자어는 글자를 그대로 센 수치보다 ‘넓게 펼쳐짐’과 ‘수없이 겹침’이라는 비유적 뜻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국총은 노 젓는 소리, 이어라는 노 젓기, 만경유리는 넓고 아름다운 바다, 천첩옥산은 겹겹의 아름다운 산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문학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며,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꿈과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조이다.

② '반영론적 관점'은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③ '패관문학'은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윤색하여 창작한, 흥미 본위의 문학을 말한다.

④ '세태소설'은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사회의 한 단면이 변모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소설을 의미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학 용어의 핵심 정의를 구별하고, 자연주의와 낭만주의의 특징이 뒤바뀐 설명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주의: 인간을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보고 현실을 과학적·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려는 문예 사조이다.
낭만주의: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현실의 제약을 넘어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문예 사조이다.
반영론적 관점: 문학 작품을 그 작품이 나온 사회·역사적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하는 관점이다.
패관문학: 민간의 설화나 항간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윤색하여 흥미롭게 기록한 문학이다.
세태소설: 특정 시대의 풍속과 사회 현실 또는 그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그린 소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 '꿈과 이상을 추구'한다는 부분은 자연주의가 아니라 낭만주의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자연주의는 인간과 사회를 유전·환경 등의 조건과 관련지어 과학적·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현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사조이다.
② O —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을 사회·역사적 현실의 반영으로 보고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③ O — 패관문학은 민간의 설화나 항간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윤색하여 흥미롭게 기록한 문학을 가리킨다.
④ O — 세태소설은 특정 시대의 풍속과 사회의 한 단면, 그리고 그 변화 양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자연주의'라는 명칭 때문에 자연이나 자유를 중시하는 사조로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선지의 '자유로운 감정', '꿈과 이상'은 낭만주의의 표지이며, 자연주의의 핵심은 유전·환경의 영향과 현실의 객관적 관찰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예 사조는 대표 표지어로 구별한다. ‘감정·상상·꿈·이상’이면 낭만주의, ‘유전·환경·과학적 관찰·현실 묘사’이면 자연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낭만주의는 감정과 이상, 자연주의는 유전·환경과 현실 관찰이다.

NoteBase

문 14. 24절기 중 ㉠과 ㉡에 각각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도 다 지나, (㉡)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① ㉠ 청명
㉡ 처서

② ㉠ 입춘
㉡ 곡우

③ ㉠ 곡우
㉡ 경칩

④ ㉠ 경칩
㉡ 청명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24절기의 봄철 순서와 지문의 계절 단서를 연결하여 빈칸에 알맞은 절기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봄의 절기는 입춘 → 우수 → 경칩 → 춘분 → 청명 → 곡우의 순서이다. 지문은 우수와 ㉠이 이미 지났고 ㉡ 무렵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은 우수 다음의 경칩, ㉡은 그보다 뒤의 청명이 자연스럽다. 버들가지가 푸르러지고 살구·복숭아·진달래가 피는 모습도 봄철 배경과 맞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의 청명보다 ㉤의 처서가 뒤에 오기는 하지만, 처서는 가을에 드는 절기이므로 봄꽃이 피는 지문의 계절과 맞지 않는다. 잘못된 '㉠ 청명, ㉤ 처서'는 '㉠ 경칩, ㉤ 청명'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입춘은 우수보다 앞선 절기이므로 '우수도 입춘도 다 지나'라는 배열이 시간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잘못된 '㉠ 입춘, ㉤ 곡우'는 '㉠ 경칩, ㉤ 청명'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봄 절기의 순서에서 경칩은 곡우보다 앞선다. 따라서 곡우가 지난 뒤 경칩 무렵이 된다는 배열은 역순이다. 잘못된 '㉠ 곡우, ㉤ 경칩'은 '㉠ 경칩, ㉤ 청명'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우수 다음에 경칩이 오고, 그 뒤 춘분을 거쳐 청명이 온다. '우수도 경칩도 다 지나, 청명 무렵'이라는 흐름과 봄비·새잎·봄꽃의 정경이 모두 자연스럽다.

오답 포인트

절기의 이름만 봄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②나 ③을 고르기 쉽다. 특히 ②의 입춘은 봄 절기이지만 우수보다 앞서므로 ㉠에 들어갈 수 없고, ③은 곡우와 경칩의 순서를 거꾸로 제시했다. ①의 처서는 가을 절기라는 점도 지문의 봄 풍경과 충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준 절기 앞뒤의 순서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꽃·비·새잎 같은 계절 묘사가 그 절기와 맞는지 대조한다. 봄 절기의 순서는 입춘 → 우수 → 경칩 → 춘분 → 청명 → 곡우이다.

암기 포인트

봄 절기는 '입우경춘청곡', 즉 입춘·우수·경칩·춘분·청명·곡우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15. 위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도 다 지나, (㉡)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긴 작품이다.
② 한국전쟁 직후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불안과 고뇌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③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함께 귀향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④ 부조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비극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선택과 결말을 바탕으로 작품의 핵심 주제와 시대적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김동리의 「역마」로, 성기가 계연과의 이별 뒤 타고난 떠돌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린다.

핵심 개념

「역마」는 인간이 타고난 운명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결국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한국인의 전통적인 운명론적 세계관과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다. 제시문의 계절 변화와 서정적인 자연 묘사는 성기의 이별과 운명 수용을 부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성기는 계연과 헤어진 뒤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길을 떠날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는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의 모습과 전통적인 운명론적 정서를 보여 준다.
② X. 틀린 표현은 '한국전쟁 직후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불안과 고뇌'이다. 제시문의 성기는 전후 지식인이 아니며, 작품은 전통적 삶의 공간에서 타고난 떠돌이 운명과 그 수용을 다룬다. 올바르게는 '성기가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려다 끝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함께 귀향하는 과정'이다. 성기와 계연의 사랑은 이별로 끝나며 두 사람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성기와 계연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과, 성기가 다시 길을 떠날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부조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하는 현대인'이다. 작품의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아니라 성기의 타고난 떠돌이 운명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올바르게는 '전통적 공동체를 배경으로 인간이 숙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한국전쟁 직후의 지식인', ③의 '함께 귀향', ④의 '자본주의 사회'는 모두 제시문의 인물·사건·배경과 맞지 않는 설명이다. 마지막의 침묵과 계절 변화만 보고 무기력한 패배로 판단하지 않고, 성기가 정착을 거부하고 다시 떠나는 결말을 운명 수용과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설명 문제에서는 먼저 인물의 최종 선택을 확인하고, 그 선택을 만든 갈등이 개인의 숙명인지 시대·사회의 모순인지 구분한다. 성기의 이별과 재출발은 전후 지식인의 불안이나 자본주의 비판이 아니라 떠돌이 운명의 수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역마」는 떠돌이 운명,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숙명 수용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6. (가)~(라)를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울리히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① (나)-(라)-(다)-(가)

② (라)-(나)-(가)-(다)

③ (나)-(가)-(다)-(라)

NoteBase

④ (라)-(가)-(다)-(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체화의 개념을 제시한 뒤, 두 학자의 공통 인식을 거쳐 현대의 위기에 관한 견해 차이를 차례로 설명하는 글의 흐름을 묻는다.

올바른 순서

(라) 개체화의 뜻을 정의하고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소개한다.
(나) 개체화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양상을 설명하고, 개체화의 가속화에 대해서는 두 학자의 인식 차이가 없다고 밝힌다.
(가) '그런데'로 앞의 공통점을 전환하여 현대의 위기와 개체화의 관계에 관한 차이를 제시하고, '먼저' 벡의 견해를 설명한다.
(다) '한편'으로 벡의 견해에 이어 바우만의 견해를 설명한다.
왜 이 순서인가: (라)의 개념 정의와 학자 소개가 이후 논의의 전제이고, (나)의 공통점 제시가 (가)의 '그런데'라는 대조를 가능하게 하며, (가)의 '먼저' 벡 다음에 (다)의 '한편' 바우만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나)보다 개체화의 뜻과 두 학자를 처음 소개하는 (라)가 먼저 와야 하며, '먼저' 벡을 다룬 (가)보다 '한편' 바우만을 다룬 (다)가 앞선 점도 잘못이다. 틀린 배열 '(나)-(라)-(다)-(가)'는 올바르게는 '(라)-(나)-(가)-(다)'이다.
② O — (라)의 개념 정의·학자 소개, (나)의 공통 인식, (가)의 벡 견해, (다)의 바우만 견해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특히 (나)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와 (가)의 '그런데 … 시선은 사뭇 다르다'가 공통점에서 차이점으로 전환되는 관계이다.
③ X — (라)는 개체화를 정의하고 두 학자를 소개하는 도입 문단이므로 마지막에 올 수 없다. 틀린 배열 '(나)-(가)-(다)-(라)'는 올바르게는 '(라)-(나)-(가)-(다)'이다.
④ X — (가)의 '그런데'는 (나)에서 밝힌 두 학자의 공통 인식과 대조되므로 (나)가 (가)보다 먼저 와야 한다. 틀린 배열 '(라)-(가)-(다)-(나)'는 올바르게는 '(라)-(나)-(가)-(다)'이다.

오답 포인트

(라) 다음에 곧바로 두 학자의 차이를 다루는 (가)를 붙이기 쉽지만, (가)의 '그런데'는 (나)에서 제시한 공통점을 받아 견해 차이로 전환하는 표현이다. 또한 (가)의 '먼저'와 (다)의 '한편'은 벡을 먼저, 바우만을 나중에 설명한다는 순서를 확정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배열 문제는 정의·대상 소개 문단을 먼저 찾고, 지시어와 접속어가 받는 앞 문장을 확인한 뒤, '먼저-한편'처럼 짝을 이루는 표지를 이용해 세부 순서를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정의와 소개 → 공통점 → '그런데' 차이점 → '먼저' 벡·'한편' 바우만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7. 윗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울리히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① 개체화 현상은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가속화되었다.

②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나뉘어 계급적 유대감이 약화되었다.

③ 벡은 개체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바우만은 가속화된다고 보았다.

NoteBase

④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은 개체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개체화가 가속화된 사회적 배경과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공통된 인식과 서로 다른 위기 진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체화는 산업화로 사회가 분화되면서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
벡과 바우만은 모두 세계화 이후 개체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본다. 다만 벡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전 지구적 위험에 맞서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바우만은 개체화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보고 개인들이 협력하지 못한 채 각자 위기에 대처하게 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은 자본과 노동의 국경 간 이동을 가속하고 국가의 개인 통제력을 약화하였다. 이는 세계화 이후 개체화가 더욱 빨라진 배경으로 유추할 수 있다.
② O — 노동 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으로 분절되었고, 그 결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계급적 유대가 약화되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벡은 개체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다. 벡과 바우만은 모두 개체화의 가속화 추세를 인정했으며, 차이는 가속화 여부가 아니라 개체화된 개인이 현대의 위기에 대응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있다.
④ O — 핵가족화에 더하여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족의 해체 현상은 공동체적 유대에서 벗어나는 개체화와 관련된다.

오답 포인트

두 학자의 견해 차이를 개체화의 '진행 속도'에 대한 차이로 바꾸어 놓은 ③이 함정이다. 두 사람 모두 개체화의 가속화를 인정하며, 실제 차이는 위기에 맞선 연대와 실천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벡과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바우만의 대응 전망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비교 문제에서는 먼저 두 학자의 공통 전제를 찾고, 그다음 견해가 갈리는 지점을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개체화 가속'이 공통 전제이고, '개체화된 개인의 연대와 정치적 실천 가능성'이 차이점이다.

암기 포인트

개체화 가속은 공통, 위기 대응은 벡의 연대 가능성과 바우만의 협력 약화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18. 다음 고사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공이 당상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오니까?” 물었다.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올시다그려.” 한다. 공인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꺼기 된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 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늙은 목수 자약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한다.
“저는 목수라 치목하는 예를 들어 아뢰오리다. 톱질을 해보더라도 느리게 당기면 엇먹고 급하게 당기면 톱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당기는 데 묘리가 있습니다만,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옛적 어른들께서도 정말 전해 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러해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하옵니다.”
환공이 물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설화나 문장이나 그것들이 한 묘(妙)의 경지의 것을 발표하는 기구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 와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① 以心傳心
② 遼東之豕
③ 不立文字
④ 敎外別傳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말이나 글로는 깨달음과 기예의 본질을 온전히 전하기 어렵다는 고사의 핵심과 한자성어의 의미가 통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以心傳心은 말이나 글을 거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는 말이다. 不立文字는 진리가 문자에만 의존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敎外別傳은 경전 밖에서 깨달음을 별도로 전한다는 말이다. 세 성어는 모두 언어와 문자만으로는 본질을 온전히 전하기 어렵다는 고사의 내용과 이어진다. 반면 遼東之豕는 견문이 좁아 평범한 것을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한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以心傳心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는 의미이므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목수의 묘리를 다룬 고사와 관련된다.
② X — 遼東之豕는 고사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말이나 글로 전할 수 없는 경지를 뜻하는 성어처럼 제시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견문이 좁아 남에게는 평범한 것을 대단한 일처럼 여기며 자랑한다는 뜻이다.
③ O — 不立文字는 진리나 깨달음이 문자에만 의존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책은 옛 성인이 전하려던 본질을 담지 못한 찌꺼기일 수 있다는 내용과 통한다.
④ O — 敎外別傳은 가르침의 참뜻을 경전 밖에서 별도로 전한다는 뜻이므로, 글보다 직접 체득한 묘리가 중요하다는 고사와 관련된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네 글자의 한자성어이므로 겉모양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 특히 ② 遼東之豕는 문자 밖의 깨달음과 관계된 말이 아니라 좁은 견문에서 생기는 자만을 비판하는 말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반복되는 핵심을 먼저 잡는다. 이 글의 핵심은 '손과 마음으로 체득한 묘리는 말과 글로 그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언어·문자를 넘어선 전승과 관련된 성어는 남기고 자만을 뜻하는 성어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以心傳心·不立文字·敎外別傳은 문자 밖의 전승, 遼東之豕는 좁은 견문의 자랑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의 독음이 모두 적절한 것은?

梅花는 確實히 春風이 ㉠駘蕩한 季節에 ㉡爛漫히 피는 濃艶한 白花와는 달라, 現世的인, 享樂的인 꽃이 아님은 勿論이요, 가장 超高하고 ㉢狷介한 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 꽃이 淸楚하고 佳香이 넘칠 뿐 아니라, 氣品과 雅趣가 比할 곳 없는 것도 先驅者的 性格과 相通하거니와, 그 忍耐와 그 ㉣覇氣와 그 ㉤辛酸에서 結果된 梅實은 先驅者로서의 苦衷을 흠뻑 象徵함이겠다.

① ㉠태탕 ㉡난만 ㉢견개 ㉣패기 ㉤신산
② ㉠태탕 ㉡문만 ㉢견개 ㉣패기 ㉤행준
③ ㉠야장 ㉡난만 ㉢연개 ㉣염기 ㉤신산
④ ㉠야장 ㉡문만 ㉢연개 ㉣염기 ㉤행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한자어를 이루는 각 한자의 음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駘蕩은 태탕, 爛漫은 난만, 狷介는 견개, 覇氣는 패기, 辛酸은 신산으로 읽는다. 한자어의 독음은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거나 자주 쓰이는 다른 한자어의 소리에 끌리지 않고 각 한자의 음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 駘蕩은 태탕, ㉡ 爛漫은 난만, ㉢ 狷介는 견개, ㉣ 覇氣는 패기, ㉤ 辛酸은 신산으로, 다섯 독음이 모두 적절하다.
② X — ㉡의 '문만'과 ㉤의 '행준'이 틀렸다. 爛漫은 '난만', 辛酸은 '신산'으로 읽는다. 따라서 올바른 배열은 '태탕－난만－견개－패기－신산'이다.
③ X — ㉠의 '야장', ㉢의 '연개', ㉣의 '염기'가 틀렸다. 駘蕩은 '태탕', 狷介는 '견개', 覇氣는 '패기'로 읽는다. 따라서 올바른 배열은 '태탕－난만－견개－패기－신산'이다.
④ X — '야장－문만－연개－염기－행준'은 다섯 독음이 모두 틀렸다. 각각 '태탕－난만－견개－패기－신산'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보기들은 駘를 '야', 爛을 '문', 狷을 '연', 覇를 '염', 辛酸을 '행준'처럼 읽도록 유도한다.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탈락하는 '모두 적절한 것' 유형이므로 익숙해 보이는 음에 의존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터 ㉤까지 각 한자어를 한 글자씩 끊어 '駘-태, 蕩-탕 / 爛-난, 漫-만 / 狷-견, 介-개 / 覇-패, 氣-기 / 辛-신, 酸-산'으로 대조한다.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보기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駘蕩 태탕, 爛漫 난만, 狷介 견개, 覇氣 패기, 辛酸 신산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중 레제드라마(lesedrama)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비극과 희극이 결합된 극을 말한다. 불행한 사건이 전개되다가 상황이 전환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②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극을 의미한다.

③ 상연보다는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쓴 희곡을 말한다.

④ 원래는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주로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여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을 의미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극의 종류를 구분하고 레제드라마의 핵심 성격이 상연이 아니라 독서에 있음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레제드라마(lesedrama)는 무대에서 상연하기보다 독자가 읽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쓴 희곡으로,
독서극이라고도 한다.
희비극은 비극적 요소와 희극적 요소가 결합된 극이고, 키노드라마는 무대 연극과 영화를 결합한 극이며,
멜로드라마는 오락성과 통속성이 강한 극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비극과 희극이 결합된 극'은 레제드라마가 아니라 희비극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비극적 요소와 희극적 요소가 결합된 극을 희비극이라고 한다'이다.
② X —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극'은 레제드라마가 아니라 키노드라마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무대 연극과 영화를 결합한 극을 키노드라마라고 한다'이다.
③ O — 레제드라마는 실제 상연보다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창작한 희곡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X — '원래는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이었고, 현재는 일상사를 바탕으로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은 레제드라마가 아니라 멜로드라마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오락성과 통속성이 강한 극을 멜로드라마라고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④는 서로 다른 극의 정의를 나열해 놓은 선지이다. 특히 레제드라마의 '드라마'라는 말만 보고 공연 형태의 결합이나 내용상의 특징을 고르면 틀리기 쉽다. 정답을 가르는 표현은 ③의 '상연보다는 읽히는 것을 목적'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극의 종류를 묻는 문항에서는 구분 기준을 먼저 잡는다. 읽기 목적이면 레제드라마, 비극과 희극의 결합이면 희비극, 연극과 영화의 결합이면 키노드라마, 오락적·통속적 극이면 멜로드라마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레제드라마는 '무대에서 보는 극'이 아니라 '책으로 읽는 극'이다.

NoteBase